

전남대병원 전공의 225명·기독병원 17명 전원 사직처리

조선대병원도 금명 가세할 듯...신규인력 충원 과제

전남대병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인턴-레지던트) 225명에 대한 사직을 일괄 처리했다.

전남대병원의 사직처리는 지난 2월 이들이 사직서를 제출한지 6개월만이다. 전남대병원이 광주·전남 수련병원에서 처음으로 사직처리 물꼬를 틔에 따라 광주기독병원도 전공의 17명에 대한 사직처리를 했다. 조선대병원도 금명 가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전남 수련병원은 의료핵심 인력인 전공의 공백을 메워야하는 난제에 직면하게 됐다.

전남대병원은 "지난 6일 전남대병원 소속 전공의 225명에 대한 사직서를 일괄 수리했다"고 8일 밝혔다. (관련 기사 6면)

사직 처리시점은 사직서를 제출한 지난 2월 29일이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던 전공의 18명은 병원으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대병원은 의료공백 상황을 더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병원 측이 그동안 전공의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마지막까지 복귀·사직 여부를 밝혀 달라고 설득했지만, 대다수 전공의는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는 병원의 핵심 인력으로, 이들이 지난 2월부터 현장을 떠남에 따라 전남대병원은 의대교수 등이 진료를 도맡는 비상진료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전남대병원은 사직서 수리 시점은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지는 않았다.

정부는 '사직의 법적 효력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철회된 6월 4일 이후 발생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전남대병원 측은 퇴직금 정산 등의 기준이 되는 사직 효력 발생 시점을 2월 29일로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남대병원에서 일하던 200명이 넘는 전공의들이 의료 구직현장으로 나오게 됐다.

일부 전공의들은 "어차피 할 사직처리를 질질 끌었다"면서 "결국 수련병원과 교수들이 우리(전공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또 다른 전공의는 "지금이라도 기준에 제출했던 사직서가 수리돼 다행"이라면서 "그동안 면허가 묶여 일을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전공의들은 이

제 개원의 쪽으로 갈수 있게 됐지만, 지역의료가 완전히 무너진것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광주기독병원도 전남대병원에 이어 8일 전공의 17명에 대한 사직서를 수리했다.

조선대병원도 전공의 사직처리와 관련 이들 병원과 보조를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대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모두 96명이다.

전남대와 조선대 병원은 정부가 오는 9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해당기간에 전공의를 뽑을 계획이다.

광주·전남 수련병원(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광주기독병원) 전공의 모집 연장 인원(TO)은 총 68명(전남대병원 28명, 조선대병원 40명)이다. 해당 모집인원은 상반기 전공의 채용 당시 선발하지 못한 숫자다.

당초 광주·전남 수련병원은 지난달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작했지만, 지원자는 총 3명(조선대병원 1명, 광주기독병원 2명)에 그쳤다. 광주기독병원은 모집인원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연장 모집기한은 레지던트는 14일, 인턴은 16일 까지가다.

사실상 마지막 전공의 충원이라는 입장이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 광주·전남 수련병원 교수들의 설명이다.

광주지역 수련병원 한 교수는 "이미 전남대병원에서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처리를 한 시점에서 다시 전공의 모집을 연장해봤자 지원자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수도권 맞춤 부동산 정책 광주 아파트 시장 명든다

"'8·8 정책'에 지방 미분양 심화"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맞춤형 부동산 정책을 계속 내놓으면서 광주 등 지방 신규 아파트의 과도한 분양가 상승, 과잉 공급에 따른 미분양 증가, 가격 하락 및 양극화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서울-수도권의 아파트 공급 확대가 지방의 주민-자본의 이동을 촉진하고, 수도권으로의 극한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 가속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고음도 울리고 있다. 각 지자체가 지역 주택 수요를 감안해 그에 맞게 공급 계획을 수립해 집행할 수 있도록 부동산 정책 자체를 지자체에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관련기사 3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주택수요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며 8·8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골자는 도심 내 우량주택 획기적 확대,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개발표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 확산 부여,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및 물량 확대, 주택공급 여건 개선 등이다.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부동산 가격이 들쭉이 고 있는 서울-수도권에 보다 적극적으로 향후 6년간 42만7000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 택지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지방 미분양과 관련하여서는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업계가 이미 고개를 저었던 CR(Corporate Restructuring)리츠,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세 점

토를 내놓았다. CR리츠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고 임대 운영하다가 경기 회복 시 분양 전환해 투자 수익을 반환하는 상품이다.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경기가 극단적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실정에서 지방 미분양 물량에 누가 투자하려 하겠느냐는 불만 소리가 나오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다.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면서 업계가 주택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미분양 물량의 공공주택 전환, 대출 금리 지원 등 적극적인 대책이 없다는 의미다.

이 같은 서울-수도권의 무차별적인 주택 공급은 오히려 지역 부유층들의 투기 심리를 자극하며, 지역자본 유출로 이어져 지역 부동산 경기를 더 침체하게 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지난 5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7만2129가구로 집계됐으며, '약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은 1만3230가구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차원에서 부동산 정책 수립 및 집행 권한을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2011년 주택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다. 지역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주택·부동산 정책을 지자체가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실질적인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전남 태극전사, 한국 역대 최다 금 이끈다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그랑팔레 태권도경기장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태권도 남자 58kg급 결승전에서 승리해 금메달을 딴 한국 박태준이 태극기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근대 5종 전용태·서창완 출격

하계 올림픽에 48년 만에 최소 선수(144명)를 보내며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떨어졌던 2024 파리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이 거침없는 금메달 사냥에 나서고 있다.

8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금메달 12개,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로 모두 27개의 메달을 따낸 한국은 이미 전체 메달 수에서 2016 리우데자네이루 대회(21개)와 2020 도쿄 대회(20개)를 일찌감치 추월했다.

특히 금메달 1개만 보태면 2008 베이징 대회와 2012 런던 대회에서 수립한 역대 단일 대회 최다 금메달(13개)과 동률을 이룬다. 금메달 5개 획득을 제시한 원래 목표의 배를 훌쩍 넘기는 수치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오는 11일 대회 폐회를 앞두고 여세를 몰아 태권도와 근대 5종에서 추가 금메달을 기대한다. 한 번 상승세를 타면 무섭게 떠오르는 우리나라 특유의 분위기를 살려 대회 마지막 날까지 금메달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2면에 계속>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Sulwhasoo
THE ULTIMATE S CREAM
NEW 설화수 진설크림